

40년 만에 드러난 한라산 쓰레기

16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서 수거 작업 돌입 2t 규모로 확인... 제조일자 1978년 과자봉지도 “출처 확인은 어려울 듯... 환경 감시 강화할 것”

속보=한라산에서 3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발견(본보 16일자 4면)된 가운데 제주도가 수거에 나섰다.

16일 제주도는 한라산 성판악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동쪽으로 약 20m 떨어진 숲 속에서 쓰레기 수거를 진행했다.

이날 수거에는 인부 10여명과 소형 포크레인 1대가 동원된 가운데 매립된 쓰레기를 파내 포대에 담은 작업이 한창이었다. 특히 매립 방식이 샌드위치처럼 쓰레기 밑에 흙, 또 파내면 다시 쓰레기가 나오는 식으로 땅 속에 묻혀 있었다.

세상 밖으로 드러난 쓰레기를 살펴보니 한일소주병과 연탄, 해태의 매도골드, 차디차바 아이스크림 포장지 등 1970~80년대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

왔다. 한 과자봉지에는 제조일자가 1978년으로 적혀져 있어 수거된 쓰레기가 적어도 4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한라산에서 40년 가량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발견되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16일 수거에 나섰다. 이날 수거작업에서는 소주병과 연탄, 과자봉지 등 1970~80년대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왔다.

과거에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매립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시기에 매립을 운영하던 인물이 폐점을 하는 과정에서 버린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한라산을 자주 등반하는 A씨는 “발견된 쓰레기가 대부분 식품인 것으로 미뤄 성판악에서 장사를 하다가 버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수거된 쓰레기는 약 2t으로, 모두 제주도 회천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졌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쓰레기가 버려진 시점이 워낙 오래돼 출처나 버린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환경 관련 감시를 강화하는 등 깨끗한 한라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도와 반출 압축폐기물 처리 ‘숨통’ 한불에너지(주) 군산·광양항 9262t 처리계획

전북 군산항과 전남 광양항에 보관 중인 제주 압축포장폐기물 처리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제주시는 도외로 반출된 뒤 최종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군산항과 광양항에 보관 중인 압축포장폐기물에 대해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이하 한불)가 처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행정대 집행 절차를 거쳐 처리한 뒤 한불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와 한불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15일 한불이 폐기물처리계획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산항에는 8637t, 광양항 6254의 제주시 압축포장폐기물이 보관 중이다.

한불은 계열사의 조각장, SRF(고형연료) 제조시설 등을 이용해 최대 9개월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타 처리업체 및 자원회수 시

설을 찾는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한불은 제주시가 북부광역소각장이 처리 못하는 잉여분 처리를 위탁한 업체다. 한불은 압축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폐기물 종합처리업체 (주)네오그린과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주)네오그린이 필리핀에 수출한 압축폐기물이 경기도 평택항으로 반송되며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경기도는 압축폐기물이 제주도 산이라고 주장하며 자체 처리 후 제주도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제주산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제주도의 자체 조사 결과, 도와 반출된 압축포장폐기물 중 2016년 12월 계약한 1782t은 필리핀 민다나오에, 2017년 계약된 9262t 중 8637t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254t은 광양항 부두에 보관됐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불법조업 中어선 침몰되자 해경 고소 지난 2월 나포 중 서귀포 해상서 강풍에 좌초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해경 압송 과정에서 침몰되자 해당 어선의 선장이 해경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국 강소선 선적 유망어선 S호(160t·승선원 11명)의 선장 A(35)씨가 업무상과실 선박매몰가 선박과피 등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예인업체 관계자를 고소했다.

S호는 지난 2월 2일 차귀도 서남쪽 130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고, 다음날 오전 11시54분쯤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 서귀포시 구두미포구 앞에서 강풍에 좌초됐다.

해경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S호 기름탱크 유류 2200ℓ와 선저폐수 950ℓ를 빼내는 한편 민간업체를 통해 이주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예인이 이뤄지던 2월 23일 오후 1시18분쯤 S호는 수심 92m 아래로 침몰됐으며, 해경은 주변 해역을 지나선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양을 포기했다.

이후 구상 상태에 있던 S호 선장 A씨는 최근 담보금 3억원을 내고 석방된 뒤 지난달 16일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은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해경에 지휘를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취업 알선 중국인 구속

제주지방검찰청은 직업안정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37)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인 불법체류자 B(35)를 서귀포지역 마늘농장에 취업시키고 2

만5000위안(한화 약 430만원)을 알선비로 받는 등 올해 4월까지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중국인 6명에게 총 12만3000위안(한화 약 2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지난해 9월 체류 기간이 경과한 A씨는 SNS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귀포지역 마늘농장에 취업시키고 2

지인 5명 인부로 허위 입력 사업비 가로챈 공무원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위탁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시 소속 7급 공무원 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방역소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총 1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인 5명을 가짜 근로자로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의를 빌려준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다. 송은범기자

■ 도감사위원회 ‘농업용 지하수관정 실태’ 발표 취수량의 62% 중간에서 ‘줄줄’

30년 넘는 관정만 209개 목적의 사용사례도 다수

제주도내 농업용 관정의 평균 유수율은 38%로 취수량의 62%에 이르는 농업 용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6일 농업용수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6월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 실태’에 대한 성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 전체 지하수 허가 취수량은 161만5000㎥/일로 이중 농업용수는 90만5000㎥/일(56%)이다.

감사결과 관정별 취수량과 실제 농가사용량을 비교해 유수율을 산정한 결과 224개 관정의 평균 유수율은 38%로 확인돼 취수량의 62%에 이르는 농업용수는 실제 농가에서 이용되지 못하고 중간에 누수가 되

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누수실태 및 원인을 정확히 파악 한 후 노후관로 교체 등 유수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도 전체 지하수 허가 취수량의 56%를 차지하는 농업용 지하수 관정 3218개 공의 1일 취수허가량은 90만5000㎥인데 반해 1일 평균 이용량은 22.8% 수준인 20만6000㎥으로 취수허가량 대비 사용량에 여유가 있으나 일부 특정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농업용 지하수 관정개발을 지속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 이후 제주에 개발붐이 일면서 경작을 하던 농경지가 펜션 등 숙박용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용도 변경된 농지에 대한 정기점검 등 농업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대

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891공 중 2018년 7월 현재 미 사용하거나 소량 사용하는 관정은 58공이며 이 중 38개 관정은 취수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사용 관정을 방지할 경우 상부보호시설 노후화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수자원정책 및 관리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후관정으로 인한 수질부적합 문제도 확인됐다.

도내 공공 농업용 관정 894공 중 30년이 경과한 관정은 209공이고 이중 40년이 경과된 관정은 55공(6.2%)으로 2017년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53공이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노후관정에 의한 수질부적합 문제가 있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질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 완효적 질소비 효과
- 석회효과
-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 선충 밀도의 저하
- 잡초의 경감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토양소독 효과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토양 미생물 활성화
- 유기물의 부숙 촉진
- 토양의 비옥화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투입 용량: 4중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허비료 관주 면적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 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전액무료교육 매월최대 116,000 지급 순서: 방문 상담 → 고용센터

전기배선공사 실무자양성과정

1기 취업 86% 달성 100% 취업연계

- 대 상: 실업자/구직자/매출1억5천미만사업자
- 교육기간: 6월 개강예정 - 6.5개월 과정
-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 교육내용: 전기 배관배선공사, 약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설계 등

※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 : 747-5252 jejujwon.com

※ 본교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방수

- 폴리에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구간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소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